

■ 영상 택배 시즌 2 - 신라(新羅) 열전



이번 주에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제작한 "신라 열전"입니다. 신라의 융성했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된 많은 유물 가운데 대표적 유물 열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라시대로의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을 권해봅니다.

■ 역사속의 오늘

옴지 못한 복수 - 1954년 4월 16일

제주 4·3을 배경으로 한 영화 <지슬>에서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괴물 같은 이가 등장한다.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지만 무력을 행사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치 듯 대하던 그들은 서북청년단이었다. 서북이라는 뜻은 관서와 관북을 통틀어 말한 것으로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북한 정권을 피해 월남한 이들이 만든 조직이 바로 그것이었다.

서북청년단은 1946년 11월 30일 지금도 남아 있는 종로 YMCA 회관 강당에서 그 깃발을 처음으로 올렸다. 그들이 그 실력을 선보였던 것은 1947년 3월 1일 전국 각지의 3·1절 기념식장에서였다. 이들은 좌익 계열의 기념식을 습격하여 잔인한 테러를 일으키며 그 이름을 이 땅에 날리기 시작했다. 1949년 6월 경교장에서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도 군인이면서 서북청년단 회원이었다.

4·3 당시 제주도를 휩쓸던 이 서북청년단의 사업부장이 김성주다. 평안도가 고향으로 꽤 유복하게 살았다는 그는 해방 이후 일가족과 함께 월남했다.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던 임대식 박사에 따르면 그는 이재(理財)에 밝은 눈과 귀를 지녔던 것으로 짐작된다.

“(서북청년단은) 배급표 과다할당이란 소박한 단계에서 적산물자 불하라는 좀 더 과감한 대규모의 협잡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서청 간부들은 이러한 협잡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미 군정청을 ‘건너마을 과방(果房)’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협잡에 김성주(사업부장, 섭외부장)가 큰 역할을 했다. 김성주는 “미군 장교와도 개별적인 선을 대어 소위 보급작전에서 많은 수확을 얻어냈다.” (임대식 “제주 4-3항쟁과 우익 청년단” <제주 4-3 연구> 215쪽)

그는 서북청년단 부위원장까지 올라가 이승만의 수족 노릇을 했으나 청년단의 분화와 이합집산 과정에서 팽을 당하고 말았다. 서북청년단 위원장이었고 한국전쟁 이후 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문봉제를 비롯한 주류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린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김성주는 38선을 넘어 북진한 미군과 함께 북으로 들어가 미군정이 임명한 평안남도지사가 되었다. 이승만이 파견한 사람들은 김성주와 미군에게 쫓겨나 남쪽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이승만이 평양 시민 앞에 연설하는데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 '종던 시절' 도 중공군이 참전함에 따라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김성주는 1952년 8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정적인 조봉암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그간의 행적을 보면 천만부당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봉암 선거본부의 총무를 맡았던 신창균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김성주는 조봉암 아래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서북청년단에 있으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한 것을 우리도 알고 있었지요. 김구 암살에 협력하고 단정수립·단독선거에서 무력을 행사했으며 이승만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자가 조봉암을 도우러 온다니 우리에게 덧칠해진 공산당 색깔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사무차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어요.” (한겨레 신문 1991년 3월 29일 7면 권력 암투 깔려 몰래 처형된 '정치하수인' 中)

이로써 김성주는 이승만과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1953년 여름 헌병대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연행된 그는 “정부시책에 불만을 품고 사회민주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이승만 대통령 살해음모를 꾸민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10개월 동안 11차례의 공판을 받고 7년 징역을 구형받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954년 4월 16일 밤, 서울 신당동에 있던 헌병사령관 원용덕의 집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날 저녁 형무소에서 끌려나온 김성주는 원용덕의 운전병이었던 임정수 상사에 의해 총살되고 시체는 곁에 있던 방공호 속에 던져졌다.

1954년 4월 17일 예정되었던 선고 공판장에 간 가족들은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통보만 받고 돌아섰다. 이틀 후 석간 신문에 김성주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국방부 발표가 조그맣게 실렸다.

전쟁 직후인데다 이승만이 사사오입 개헌 이후 정적들에게 사법살인을 지시하던 때, 그의 가족들은 시체라도 돌려주라고 아우성쳤지만 소리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변호인 없는 사형선고'와 '입회인 없는 사형집행'이라는 '의문사'로 남겨질 뻔한 이 사건은 1955년 국회에 날아온 투서 한 장으로 발각 뒤집혔다. 김성주가 원용덕의 부관에게 사살되었다는 내용이 실린 투서가 날아들고 김성주의 가족이 다시 "유골이라도 돌려달라"는 탄원을 제출하자 유진산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원용덕은 조사에 불응했다. 여기다 더해 여당은 지속적인 방해공작을 펼쳤고 결국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같은 해 10월 보고서 한 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되었다. 그나마 이 보고서도 여당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이 동시에 게재된 채 결론이 나지 않은 요상한 모양새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4월 혁명으로 막을 내리자 장막에 가려졌던 내용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김성주의 가족이 원용덕을 비롯한 군 장성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자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때 1954년 당시 원용덕에게 전해진 이승만의 친필 영문 편지가 드러났다.

“김성주는 내가 임명한 문봉제를 해치려는 자이며 손원일 국방장관에게도 말했으니 국형에 처하라...너는 잔말 말고 즉시 내 명령대로 처단하라”(한겨레 신문 같은 기사 中)

이승만이 자신의 정적과 배신자에게 얼마나 무자비했던가를 증명하는 편지를 어찌하여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이로 인해 원용덕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곧이어 일어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원용덕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 이후는 짐작하는 대로이다. 사건 관련자는 모두 천수를 누리며 대한민국에서 호의호식했다. 김성주는 총살 이후 해방 이후 '청년운동가'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서북청년단 부단장으로 복무한 그의 활동이 '청년운동'이란 단어에 걸 맞는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각자가 할 일이다.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 열 번째 이야기

신라의 보물들 - 상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불국사 입구

비로소 보고 느꼈다. 석가탑(釋迦塔)이 얼마나 아름답고 빼어난 탑인가를. 옆에서 쌍을 이룬 다보탑(多寶塔)이 오히려 초라했다.

다보탑은 마치 자와 칼로 두터운 종이를 오려서 쌓아올린 양하였으니, 단단한 석재에 올린 고도의 세밀한 인공미는 혀를 차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석가탑이 지닌 그 단순미와 세련미는 결코 따라잡지 못했다. 정교한 비율이 주는 시각적인 우아함과 안정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마치 고결한 여인 하나가 정갈한 품새로 단아하게 서있는 듯했으니, 이리저리 꽃단장을 한 다보탑이 저절로 누추해졌다.



다보탑



불국사 정운교와 백운교



석가탑

그 옛날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金大城)은 새로이 석가탑을 조성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석공인 백제사람 아사달(阿斯達)을 불렀다. 아사달은 먼저 동탑에 해당하는 다보탑을 완성하고, 서탑인 석가탑을 만들기에 여념 없었다. 그 사이 세월은 흘렀고, 남편을 그리워하던 아사녀(阿斯女)는 못내 불국사로 찾아왔다. 그러나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 아녀자를 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기 때문에 그녀는 아사달을 만날 수 없었다.

천리 먼 길을 달려온 아사녀는 먼발치로나마 아사달을 볼 수 있을까 날마다 불국사 앞을 서성거렸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스님 하나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연못이 있으니, 지성으로 빌고 빌면 탑이 완성되는 날 탑 그림자가 못에 비칠 것이오."라는 말로 위로하였다. 아사녀는 스님의 말을 믿고 그날부터 온 종일 연못을 지키면서, 수면 위로 탑 그림자만 떠오르길 기다렸다.

어느 날이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연못을 비추자, 물속에서 기기묘묘하게 생긴 하얀 탑한 기가 떠올랐다. 아사달이 이미 완성시킨 다보탑이었다. 아사녀는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워 "아사달님!"하고 외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움이 사무쳐 잠시 환상을 보았던 것이다.

얼마 후 석가탑이 완성되자, 아사녀가 못가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들은 아사달은 한 다름에 뛰어갔으나, 아내는 영영 보이지 않았다. 아사달이 아내를 찾아 못 주변을 헤매는 중, 어느 순간 앞에 있는 바위 위로 불현듯 아사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는 아사달을 향해 방그레 웃던 아사녀의 형상이 차츰 사라지더니,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뒤따라 떠올랐다. 아사달은 마침내 바위 위에 아내의 모습을 새긴 뒤,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뒷날 그 연못을 '영지(影池)'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못에 그림자가 비쳤던 다보탑을 유영탑(有影塔)이라고 불렀다.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던 석가탑은 무영탑(無影塔)이라고 불렀다.

아사녀의 녀이 깃들었는가? 가슴시리도록 고아한 석가탑 주변을 얼마나 맴돌았는지 모른다. 그 바람에 불국사의 곱디고운 단청 역시 무색해지고 말았다. 석가탑 하나만으로 불국사 구경은 다한 셈이었다.

다음 주는 <경주 답사기> 열한 번째 이야기 "신라의 보물들 - 하"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